

■ 김효신의 포르투갈 여행기

포르투, 도우루 강이 흐르는 곳

18. 싸웅 벤투 (São Bento) 기차역 2

파란색을 좋아한다. '파란색'이라고 말하는 대신 '푸른색' 혹은 '블루'라고 말하면 더 파랗게 느껴진다. '블루'가 '화이트'와 만나면 조화롭고 우아하다. '블루'와 '화이트'의 조합이 신세계처럼 다가왔던 것은 오래 전 네덜란드에서 델프트(Delft) 자기를 처음 보았을 때였다. 하얀 도자기나 타일에 파란 아니 푸른색으로 그림을 그리고 문양을 새긴 델프트웨어는 생활공예, 혹은 생활미술의 정점이라고 느껴졌다. 그런데 이 싸웅 벤투 기차역의 아줄레주 벽화는 무엇인가? 공예와 미술이 진화되어 예술이 되어 버린 현장이다.

우리가 싸웅 벤투 기차역을 밤에 들려본 것은 다행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늦은 시각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이 한산해서 조용히 마음껏 둘러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 불행인 것은 밝게 조명을 하기는 했지만 어두워서 아줄레주 벽화의 그 푸른빛을 완벽하게 감상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자연광 속에서는 환하게 파란빛을 띠었을 타일들이 밤 조명 속에 군청색 같은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싸웅 벤투 기차역 벽화를 제작하기 위해 조르제 콜라 쏘는 20,000여 점의 아줄레주 타일을 사용했다고 한다. 제작 기간은 십 년. 높이 솟은 천장 밑으로 사방의 벽에 포르투갈의 역사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을 그렸다. 포르투갈 역사를 잘 알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전쟁과 승리, 정복과 항복 등 여느 역사와 다름없는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었다. 돌아가면서 보다가 전부터 알고 있던 '항해왕 엔리케'를 그린 벽면을 발견하고 반가워서 자세히 보았다.

엔리케 왕자가 세우타 정복지에서 폐자들을 무릎 끌리고 깃발을 높이 날리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지.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열고 바다로 나아갔던 나라였다.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붙어서 스페인과 이슬람의

압박을 받으며 버틴 끝에 살길을 개척하기 위해 나간 것 이지만 참으로 용감했고, 감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미안 하지만 참으로 낭만적이었다. 그러나 아줄레주 벽화가 말해주는 포르투갈의 역사는 낭만은 커녕 투쟁과 전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다.

파란 타일로 제작한 역사화 위에는 여러가지 채색 타일로 만든 또 하나 시리즈 타일 벽화가 있었다. 포르투갈의 교통 역사인 듯 하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용한 교통 수단들이 일목요연하게 그려져 있다. 아래의 역사화를 보다가 그 위의 비교적 단순한 벽화를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진정이 되었다. 파란 타일 역사화는 그 규모와 완성도에서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지만 십 년에 걸쳐 20,000점의 타일을 사용해 만든 그 공정이 상상이 안 되어 숨이 막혔던 것도 사실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 타일 한 장 한 장에 그려진 그림 조각들이 이렇게 거대한 벽화를 이루도록 설계를 하고 실행을 했는지 그 제작기법이 궁금하기도 했다.

아줄레주의 싸웅 벤투 기차역에 우리는 한참 동안 머물렀다. 'PORTO'라고 써 있는 기차역 청동 시계 밑으로 도착과 출발을 알리는 전동 기차 시간표가 반짝이고 있었다. 어디선가부터 출발해 이곳 포르투 중앙 기차역 싸움 벤투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파란빛 속에 역사의 이미지가 파도치는 이 아줄레주 벽화 속으로 걸어 들어오겠지. 얼마나 아름다운 도착인가. 내가 아줄레주 벽화가 환영하는 도착을 상상하는 동안 R은 정반대의 상상을 하고 있었다. "엄마, '리스본행 야간 열차' 소설 있잖아. 여기 싸움 벤투에서 리스본으로 가는 야간열차를 타면 너무 멋있겠다. 그치?" R은 상기된 표정으로 저 멀리 플랫폼에서 있는 여행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딸. 리스본에는 아줄레주 작품들이 포르투보다 더 많다더라. 우리 다음에는 꼭 리스본에 가서 한 번 본격적으로 둘러 보자!

Lic. #920169

Since 2007 Insured & Bonded

지붕에 관한 모든 것
블루 크루에 맡기세요

Blue Crew

무료
견적

- 신축, ADU, Addition 지붕공사
- 태양광 관련 문의 및 자문환경
- 가정집, 아파트, 커머셜, 지붕수리 및 재시공

www.coolroofservicenet.net

(213) 820 - 3789 LA

(714) 224 - 8394 OC

투원전기

각종 전기공사
증축, 신축, 고장수리

Lic#970726

714.337.5112, 562.760.2210


**어바인 Sedation
& 임플란트 치과**

시니어 스페셜!

**65세 이상 메디케어로 발치,
뼈이식등 구강외과 혜택 가능**

메디케어 인증 병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로 무절개,
무통증, 빠른 회복, 치과공포 있으신 분
정맥마취로 자면서 치료 가능



James Kim 치과

949.727.0777

한국어 문의 949-702-7811

113 waterworks way #220
Irvine, CA 9261874420 Hwy. 111 Suite 1, Palm Desert, CA 92260
760.779.5662 (팜데저트 지점)